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회원에게 분기별 수여하는 방송기술인상의 2017년도 3분기 시상식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11시 목동 방송회관 10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종석 연합회장은 방송기술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방송기술인상은 맡은 바 직무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방송기술인을 위한 상으로 수상을 통해 더욱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드높여 달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임신환 MBC 방송기술인협회장은 “각사에서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여러분이니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방송시장이 급격히 변해가는 요즘, 이런 자리를 통해 연합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 근황과 각사 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방송기술인상은 지난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매 분기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 선정은 각 방송사의 추천을 통해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시상 분야는 크게 방송제작기술과 방송송출 및 송신, 방송기술연구/기획/시스템관리, 지역방송기술인상으로 나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3분기 시상식에서는 총 9명의 수상자가 방송시스템, 방송제작기술, 콘텐츠 기술, 기술 기획·관리 부문으로 수상하였다.



1. CBS 한철 수상자 수상 장면 2. 인사말 중인 임신환 MBC 방송기술인협회장 3. OBS 조성만 수상자 수상 장면 4.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
5. 수상식이 끝나고 담소를 나누는 참석자 6. 수상 중인 아리랑국제방송 박종목 수상자 7. SBS 김지완 수상자 수상 사진
8. 시상식에 참석한 조상우 YTN 방송기술인협회장과 KFN 국군방송 심영우 방송기술인협회장, YTN 최영훈 수상자

3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 및 수상 내역

수상 부문	수상자	수상 내역
방송시스템	CBS 한 철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솔루션의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 내부 안정성을 제고하고, 청취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
	EBS 계민석	편집 장비 운용, 시스템 관리자, 영상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송 제작 효율성 향상에 기여, 방송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FILE 기반 제작 시스템 도입
	JIBS 김기환	방송시스템의 설치를 감독하여 방송 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신소 이설, DTV 전환, DMB 시스템 구축 등 방송기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
방송제작기술	KBS 김명섭	중계 음향 직무를 수행하면서 5.1Ch 제작 기법을 개발하여 음향 제작 역량을 강화, 대통령 취임식, 올림픽, 해외 공연 등 대형 중계 프로그램의 음향 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
	KBS 김병수	중계방송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UHD 방송 제작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며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 4K 기반 통합형 비디오 라우팅 스위처 개발
	SBS 김지완	런던하계올림픽, 소치동계올림픽 등 세계적 행사에서 오디오 국제 신호를 제작, 뉴스센터의 시스템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여 제작 편의성 제고에 기여
	아리랑국제방송 박종목	영상 및 기술 감독으로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방송제작에 기여, 기존 중계 시스템을 개선한 포터블 중계 박스를 제작하여 중계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방송 사고를 예방
콘텐츠 기술	OBS 조성만	최종 아웃풋이 인제스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조 송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완벽한 테이프리스 시스템을 구축해 UHD 환경에 최적화하는 등 고품질 콘텐츠의 효율적 제작에 기여
기술 기획·관리	YTN 최영훈	안정적인 라이브 방송과 VOD의 다채널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OTT Box 장비 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방송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킴